



금리안정과 소비지표 둔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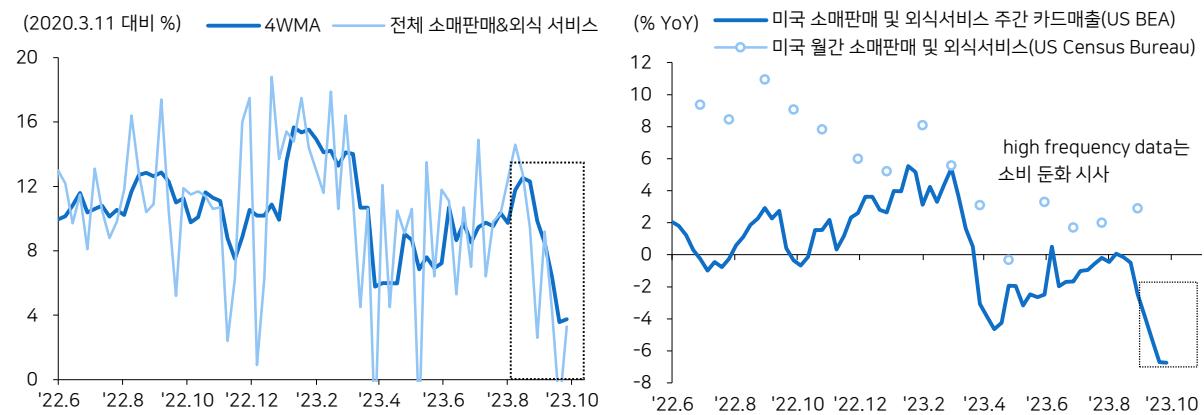
S&P500은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3거래일 연속 상승. 어제는 미국 10년 금리가 전일대비 15bp 하락하는 등 금리 부담 완화되며 중시 상승 지지. 전쟁 우려에도 유가는 소폭 하락, 인플레 기대(BEI) 변동은 크지 않은 가운데 실질(TIPS) 금리가 16bp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락 견인. 전일 중시에서 특이한 점은 유럽증시 상승폭이 컸고(STOXX50 +2.3%), 보통 금리 안정에는 기술주 상승폭이 크지만 어제는 다른 업종들이 아웃퍼포했다는 점

금리 하락은 고금리가 추가 인상 필요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연준위원들의 dovish한 발언, 당사 분석(10월 10일자 이승훈의 경제脈 참고)과 같이 표면적인 현상보다 완화적인 고용지표 영향으로 풀이

여기에 다음주(17일) 발표될 소매판매 지표도 미국채 금리 안정을 지지할 가능성.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는 미국 주간 신용카드 거래액 지표 발표. 이 데이터에 따르면 4주 이동평균 기준 9월 중순 이후 마지막 주까지 뚜렷한 신용카드 거래실적 둔화, 연초 이후 가장 낮은 레벨 기록. 세부적으로는 무점포 판매(온라인 거래), 외식서비스 등 주요 소비처 거래액의 뚜렷한 감소. 그 외 숙박, 스포츠/취미 용품점 등 비필수 소비재 판매점 매출도 감소

9월 소비심리가 고유가, 고금리를 원인으로 위축되고 있었고 여기에 1)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2) 4Q 이후 학자금 대출상환 재개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1)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아도 2)는 10월 이후 소비에 대한 영향력 추가 확인 필요

그림1 9월 중순 이후 미국 주간 신용카드 매출액 뚜렷한 감소. 다음주 발표될 미국 월간 소매판매 지표 둔화 시사



자료: US BEA,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주체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